

사회

# 법 어기고 돈받고... 유권자 무시하다 '큰 코'

## 4·11총선 영향 단체장·정치인 등 7명 법 심판대에

### 아듀 2012 광주 전남 사건·사고

- ① 폭력 얼룩진 학교
- ② 비리로 법정선 정치인들
- ③ 끊이지 않는 성범죄
- ④ 추락 광주시 행정 신리
- ⑤ 최악의 자연재해
- ⑥ 여수공무원 거액 횡령

올해도 광주·전남지역 단체장과 정치인들은 비리와 위법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4·11 총선의 영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기거나, 뇌물 등 비리와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법정에 선 단체장이 4명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전전직 정치인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사법처리됐다.

특히 광주시 동구의 경우 구청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인정돼 구청장과 국회의원 1명이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 사건 연루자는 통장, 슈퍼마켓이나 세탁소 주인 등 일반시민까지 모두 29명에 달해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이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선거사범 수가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유태명(63) 전 동구청장이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내 박주선 의원의 후보경선 과정에 개입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유 전 구청장은 청장직 사퇴 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무소속 박주선(63·광주시 동구)

의원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거쳐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민형배(51) 광산구청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민주통합당 배기운(52·나주 화순) 의원은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 및 정치인들도 속출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홍익식(54) 화순군수가 지난해 4·27 보궐선거를 전후로 8300만원의 뇌물과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홍 군수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지난 2002년 이후 보궐선거가 3차례나 반복된 화순군은 다시 군수선거를 치러야할 판이다.

임성훈(53) 나주시장 역시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위기'에 직면했고, 박광태 전 광주시장은 재임시절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해 그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민 정모(45)씨는 "선거가 있는 해여서 유독 문제가 드러난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선거법을 어기거나 비리에 연루했다는 것은 그들을 선출해준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선거사범 본격 수사

## 광주·전남 음식물제공 등 30여건

### 벽보훼손 1명 구속기소

제18대 대선이 끝나면서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거 대선에 비해 인지·고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데다 위반 정도도 약해 처벌 받는 선거사범 수는 역대 최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선거 벽보를 두 차례 훼손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벽보훼손범 2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는 등 10건 이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와함께 장성 민주통합당 수련회에서 비당원을 포함한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도 전남도 의원 등 3명을 조

사하고 있다. 이들은 참석자들에게 300여만 원 상당의 경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장성경찰은 이 외에도 식당에서 새누리당 특보 임명장과 함께 돈 봉투가 오갔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고발을 토대로 임명장,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와 목격자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각각 22건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중이며,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18건씩의 위반 사례를 적발, 고발(8건), 수사의뢰(8건), 경고(20건) 등의 조치를 끝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니원침 (8716) 김중두



### 여수 삼일동 우체국

#### 금고털이 용의자 검거

여수 삼일동우체국 금고털이(본보 12월10일자 6면 보도)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금고털이 용의자 박모(44)씨를 이날 오후 3시에 순천에서 붙잡아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중이다.

분식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의 탐문 등이 계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에 사용한 용품기 등 범행 도구와 우체국의 피해금액은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금액은 여수의 한 야산 자락에 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고무탄 사망' 중선원

#### 동료 7명 실형 선고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이 쓴 발포(發炮) 고무탄에 맞아 숨진 중국 선원의 동료 7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불법조업 단속에 흉기를 들고 저항해 해경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국선적 요단인 선장 장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원 왕모(39)씨 등 선원 6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주권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44)씨 등 4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들은 지난 10월16일 오후 신안군 흑산면 흑도 북서쪽 90km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순조개, 톱, 쇠스람 등을 들고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왜 위험한 곳서 소변보게 해" 폭행

○소변을 보고 싶다며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다가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은 5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경찰서행.

○2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9시50분경 광주시 광산구 하남지구에서 술을 마신 박모(51)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 중 소변이 급하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가 대리운전 기사(47)가 위험한 구간에 정차했다며 기사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에서 박씨는 "차가 고속으로 달리고 안전지대도 없는 곳에 기사가 정차해 화가 났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경찰은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도가니' 가해자 27일 항소심 선고

###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범행 부인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의 재판부 변경 요구로 논란이 일었던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0일 오전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청각장애 학생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

의 범행은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7월5일 시작된 것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학생의 자살 시도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 장애인과 목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예단한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각하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선거 끝났습니다" 벽보 철거

20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에 131세 할머니 산다?

## 생사 몰라 '거주불명' 처리... 선거권 유지돼 투표 통지

"광주지역 최고령 투표자는 광주시 동구 산수 1동 조00 할머니로 131세입니다."

지난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는 지역 내 가장 나이 많은 유권자가 무려 131세인 조 할머니라고 밝혔다. 세계 최고령자로 최근 기네스북에 오른 일본의 기 무라 지로에몬(115) 할아버지보다 무려 16살 연상이다. 하지만 투표소에서 조 할머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조 할머니는 주민등록상 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돼 있을 뿐

실제로는 살아 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거주 불명'자가기 때문이다.

이런 황당한 상황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거주 불명 등록제도로 변경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말소자가 기초수급권, 의무교육, 선거권 등 기본권 행사에 제약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신 '거주 불명'자가 도입됐다. 동사무소의 조사를 거쳐 거주 불명자로 결정되면 선거권은 유지되고, 신원이 확인돼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기

초수급권, 의무교육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조 할머니의 경우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거주 및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투표인도만 기재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조 할머니에게는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지 1년이 지나 규정 따라 산수1동 주민자치센터로 투표통지가 된 상태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선거인 명부에 포함된 거주 불명자는 모두 9540명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선거인수인 111

만7781명의 0.9%에 달하는 수치다.

5개 자치구는 선거를 앞둔 지난 9월부터 60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했지만 이 기간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사람은 395명에 불과했다. 앞서 9540명은 조 할머니와 유사한 경우로, 거주 및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선거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거주 불명제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檢, 영광원전 직원 비리 수사 확대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산하 영광원전 직원들의 비리 혐의를 추가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한수원 자체 조사에서 수사 의뢰된 직원 이외에 자체 수사에서 비리 단서가 포착된 직원들까지 포함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위조 검증 부품 관련 수사하는 도중 영광원전 직원의 비리 혐의가 포착돼 한수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람과 함께 살펴볼 예정"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위조된 검증서로 부품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비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원자력위원회의 발표로 영광원전 등에 위조 검증 부품 납품 사실이 밝혀진 뒤 최근에는 민관합동조사에서 영광원전 5·6호기 납품된 12개 사물 하는 도중 영광원전 직원의 비리 혐의가 포착돼 한수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람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시교육감 집무실 점거 장기화... 업무 차질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광주시교육청 점거 농성이 장기화하면서 시교육청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시교육청 앞 마당에서 22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435명에 대한 시교육청의 해고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교육감실 점

감실에 머무르고 있고, 일부 간부는 단식 투쟁 중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집무실에 들어가 지도 못해 부교육감실 등 다른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장 교육감은 이들과 면담에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나머지 수천 명의 다른 비정규직들도 고용보장을 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휴일 광주·전남 큰 눈

오는 23일 광주·전남지역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동지(冬至)인 21일 광주·전남지역은 흐리고 아침부터 서해안지역부터 비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5~30mm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2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23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3~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2도 분포를 보일 것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7분 해질 17시 24분 달돋이 12시 44분 달질 00시 58분

**동지(冬至)**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 내리겠다.

광주	흐리고비	2/6°C
목포	흐리고비	3/7°C
여수	흐리고비	4/6°C
나주	흐리고비	0/6°C
완도	흐리고비	3/7°C
구례	흐리고비	0/7°C
강진	흐리고비	1/6°C
고흥	흐리고비	2/7°C
장흥	흐리고비	2/7°C
순천	흐리고비	-1/6°C
영광	흐리고비	-1/5°C
진도	흐리고비	3/7°C
전주	흐리고비	-1/5°C
군산	흐리고비	0/3°C
남원	흐리고비	-2/5°C
옥산도	흐리고비	5/7°C

☞오전 날씨 

방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관심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오후 날씨 

방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5m	목포 08:20 01:08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목포 20:35 13:33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5m	여수 03:20 09:01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4.0m	여수 15:33 22:05

☞주간 날씨 

날짜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날씨						
최저/최고	1/5	-3/1	-6/0	-4/3	-4/4	0/4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